2012년 백양사 사건 이후 우리 종단은 종단의 위기를 자성과 쇄신 결사를 통해 어렵게 감내하고 뜻 깊은 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종도들은 쇄신위원회를 주축으로 종단의 구태한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공론과 혜안을 모았고 4대 의제, 10대 과제를 성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성안된 의제와 과제는 종단의 의식개혁을 비롯하여 행정, 입법, 사법 등 전반의 영역에서 종단을 한 걸음 발전시켜낼 변화와 개혁의 과제였으며, 절박했던 종도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대중공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종단은 당시의 절박했던 쇄신과 개혁의 정신이 상당 부분 떨어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종단 소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유여하를 떠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대중공사를 맞아 우리 모두가 당시의 상황을 되새기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청구 제정을 필두로 쇄신위원회를 통해 모아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하고자 합니다. 27일 재정투명화를 위해 주요 사찰 재정 공개를 선언했고 사회로부터 상당한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우리가 이뤄낸 3월 대중공사의 소중한 결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공론을 모아낸다면 종단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종단에 대한 자존감을 가진다면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허물을 과감히 드러내고 반성과 쇄신의 기회를 갖는 것으로부터 우리 종단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모두 자신감을 갖고 종단 변화를 이끌어갑시다. 감사합니다.